



자두의 고민 일기장

교안작성 : 이주희
박현숙 글 | 김정진 그림 | 이빈 원작
채우리 | 9,000원 | 저학년

책 소개

〈자두의 일기장〉 시리즈예요. 자두의 재미있는 일상과 자두의 일기, 선생님의 조언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두의 일기를 통해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어린이들의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어요. 또한, 이야기를 통해 자연스럽게 일기를 썼을 때 얻을 수 있는 좋은 점을 일깨워 주기도 해요.

이 세상에 고민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고, 공부도 잘한다면 고민이 없을까요? 세상에 고민이 없는 사람은 없답니다. 갑자기 어느 날부터 누군가가 좋아지기 시작했다거나, 아무 이유 없이 공부가 하기 싫어질 때가 있지요? 누군가에게 말해 버리면 속이 시원할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쉽게 말을 꺼낼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럴 때 일기장에 고민을 털어놓으세요.

일기장은 우리의 고민을 따뜻한 마음으로 품어 준답니다. 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고민을 해결해 주기도 하지요. 말할 수 없는 고민이 있나요? 그렇다면 지금 일기장을 펼쳐 보세요. 일기장에 고민을 모두 고백한 자두도 지금은 속이 시원할 거예요.

활동 목표

1. ‘고민’의 뜻을 정확히 알고 한자를 따라 쓸 수 있다.
2. 자두의 고민의 원인과 특징을 알 수 있고, 선생님의 조언으로 문제 해결 방법을 검토할 수 있다.
3. 고민은 누구나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일기 형식 가운데 자기 고백적 성격의 좋은 점을 활용해서 각자의 고민을 털어놓고 편하게 이야기해 볼 수 있다.

생각 열기

‘고민’의 뜻을 정확히 알아보자.

자두가 고민이 많은가 봐요. 자두의 일기장이 고민으로 가득 찼네요. 사실 이 세상에 고민이 없는 사람은 없답니다. 모두가 고민 속에 살아가고 있지요. 그럼 우선 ‘고민’의 정확한 뜻을 읽어 본 뒤에 적어 보세요. 그리고 ‘고민’을 한자로 두 번씩 따라 써 보세요.

● 고민 (苦悶)

마음속으로 괴로워하고 애를 태움.



고 ㅁ ㅁ 괴롭다, 애쓰다, 힘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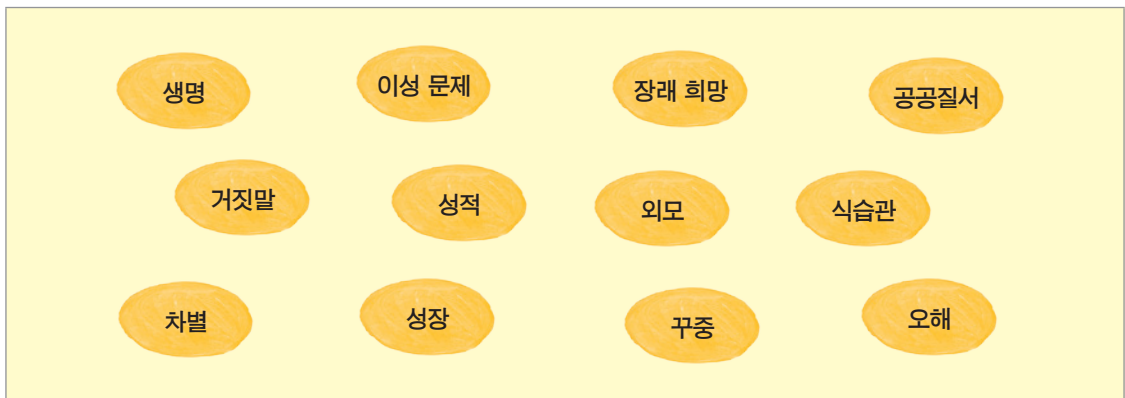
민 悶 답답하다, 깨닫지 못하다.



생각 펼치기

자두의 고민 이야기

자두가 여러분에게 12가지 고민을 고백했어요. 자두가 어떤 것들로 고민이 되었는지 고민 자두에 쓰여 있는 단어로 친구들과 서로 이야기 나눠 보세요. (가위바위보로 순서를 정해서 하고 싶은 단어를 선택해서 이야기합니다.)



자두의 고민을 잘 알아보았나요? 이번에는 책 내용을 보고 《보기》를 참조해서 자두의 고민을 단어로 답하고 내용도 간추려 보고, 선생님이 어떻게 도움 말씀을 적어 주셨는지도 이야기해 보세요.

《보기》〈나는 항아리가 아닙니다.〉

→ 〈꾸중〉 자두는 엄마가 사다 준 멜빵바지를 학교에 기분 좋게 입고 갔는데, 윤석이라는 친구가 놀렸다. 자두는 놀리는 윤석이에게 달려가 머리를 들이박았다. 윤석이가 기절을 했다. 그 일로 자두는 선생님께 야단맞았다. 자두는 선생님이 윤석이 편만 드는 것 같아 나쁘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선생님이 청소를 하는 자두에게 멜빵바지 입은 모습이 귀엽다고 했다. 자두는 나쁜 선생님이라 생각하고 선생님이라 부르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귀엽다는 말에 선생님에 대한 화가 풀렸다.

선생님이 도와줄게!

→ 한 번쯤 선생님에게 서운한 마음을 가졌던 경험은 다 있을 것이다. 다 같이 잘못했는데 나한테만 야단치시는 것 같은 경험들 말이다. 하지만 명심해야 한다. 선생님은 공평하시고, 혹시 다친 친구가 있으면 먼저 걱정하시는 것뿐이라는 것을. 그래도 서운한 마음이 든다면 선생님을 찾아가 대화를 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① <타조 뼈가 필요했다>



>

선생님이 도와줄게!



② <예뻐지고 싶은 게 죄야?>



>

선생님이 도와줄게!



 《자두의 고민 일기장》에는 자두의 다양한 모습, 재미난 그림들이 많이 그려져 있습니다. 각자 자기 마음에 드는 그림을 골라 마음껏 따라 그려 보세요. (좋아하는 색칠 도구를 준비합니다.)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고, 공부도 잘한다면 고민이 없을까요? 이 세상에 고민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갑자기 어느 날부터 누군가가 좋아지기 시작했다거나, 아무 이유 없이 공부가 하기 싫어질 때가 있지요? 누군가에게 말해 버리면 속이 시원할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쉽게 말을 꺼낼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럴 때 일기장에 고민을 털어놓으세요. 일기장은 우리의 고민을 따뜻한 마음으로 품어 준답니다. 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고민을 해결해 주기도 하지요. 말하지 못할 고민이 있나요? 그렇다면 지금 일기장을 펼쳐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고민을 자두처럼 속 시원하게 일기장에 풀어 보세요.

월	일	요일	날씨 :
그림 그리기			